

토종 벤처기업, 수출입은행과 손 잡고 해외로 나간다

－ 벤처기업협회 · 코인케와 히든챔피언 발굴 ·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

- 한국수출입은행(www.koreaexim.go.kr, 은행장 김용환)은 2월 17일 벤처기업협회(회장 황철주) 및 코인케*(대표 홍병철)와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“유망 중소·중견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* 코인케(KOINKE;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Enterprises) : 벤처기업협회와 재미기업가협회가 국내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벤처인들을 네트워크로 결성한 인케(INKE)의 한국법인

-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▲ 유망수출 벤처기업의 발굴 ▲ 벤처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수출 지원 ▲ 벤처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지원 등에 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국내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인 한국형 히든챔피언*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음.

* 수출 1억불 이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

-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으로 벤처기업협회의 벤처경영 노하우, 코인케의 해외 네트워크와 수출입은행의 국제금융지원 경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너지를 창출하여 중소·중견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·비금융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”며 “수출입은행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을 통해 무역 1조원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”고 밝혔다.

문	히든챔피언육성팀장	손영수 (☎02-3779-5291)
의	홍보실	공보팀장 채상진 (☎02-3779-6065)